

‘재벌집’ 김도현 연극·뮤지컬 무대 23년 내공...무매력의 힘

순양가 데릴사위 ‘최창제’ 눈도장
김신록과 부부연기 “거의 애드리브”
“이상민과 독대신, 창제보다 떨려”
“난 무매력...대한광대로 불리길”

배우 김도현(45)은 연극·뮤지컬 무대에서 쌓은 23년 내공을 제대로 보여줬다. 최근 막을 내린 JTBC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순양그룹 데릴사위 ‘최창제’ 그 자체였다. 부인 ‘진화영’(김신록)을 하늘같이 모셨고, 특유의 주눅 들고 비굴한 모습도 잘 살렸다. 순양가 인물 수십 명 중에서 유독 눈에 띈 비결이다. 2010년 TV매체로 넘어온 후 처음으로 주목 받았는데, “실제로도 ‘쭈꾸리’”라며 “창제처럼 잡혀 사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도 내가 수다 떨고 아내는 컨디션만 한다”고 웃었다.

“난 진짜 여성스럽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한다. 반면 아내는 과묵한 스타일이다. 20년 정도 공연하면서 잘생긴 역 빼고는 다 해봤다. 창제 같은 인물이 몇 번 맡아서 그때 기억을 되살렸다. 연기는 반응하는 게 중요한데, 김신록씨가 잘 쥐어서 잘 받을 수 있었다. 투수가 좋아야 포수가 잘 받지 않느냐. 그때 그때 좋은 액션을 던져줘서 받아먹기 편했다. 다들 연기 콘서트 하는 것 같았다. 약간 왕중왕전 느낌이랄까. 촬영장에서 지루한 적이 없었고,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

이 드라마는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 ‘윤현우’(송중기)가 재벌가 막내아들 진도준으로 회귀해 승계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다. 1회 6.1%(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16회 26.9%로 막을 내렸다. JTBC 역대 최고 시청률인 ‘부부의 세계’(2020·28.4%)를 넘지 못했지만 국내외에서 인기몰이했다. 김도현은 데뷔 후 처음으로 주목 받아 얼떨떨해했다. “약간 국경조사 받는 기분이다. 역할이 그렇다 보니 촬영의 연장 같다”면서도 “1년 가까이 촬영하며 한 신도 대중 찍은 장면이 없다. 모두

가족같이 느껴졌고, 농담으로 ‘우리도’ ‘전원 일기’처럼 가면 어때”라고 했다. 이렇게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나중에 무섭더라. 아내 표현을 빌리자면 ‘쓰나미 같았다’고 돌아왔다. 무엇보다 김신록(41)과 부부 호흡이 돋보였다. 정대운 PD의 ‘작품이 무거우니 시청자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최창제 역을 제안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질문은 ‘아내는 누구입니까?’이다. “창제는 상대 배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았다”며 “김신록씨 사진을 보고 바로 창제가 되더라. 카리스마 넘쳤고 아우라가 멋졌다”고 귀띔했다. “함께 하는 신은 거의 애드리브였다. 극본으로 시작해 애드리브로 끝났다”며 “신록씨가 현장에 오면 항상 화두를 던졌고, 진짜로 할 거라는 걸 알아서 ‘어떻게 받지?’ 고민했다. ‘오늘 다리 좀 올릴게’라고 하면 난 ‘주물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감독님이 컷을 안 해줘서 대학 때 물리치료 수업에서 배운 안마기구를 동원했다”고 덧붙였다.

순양그룹 총수 ‘진양철’(이성민)과 독대한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검사 출신인 창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장면이다. “너무 떨렸다. 이성민 선배는 연기 신이고 존경하는 분이다. ‘저런 배우가 될 수 있을까?’ 싶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다.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신이어서 엄청 중요했는데, 그 때 창제보다 도현이가 더 떨렸다. 대배우 이성민 앞에 있는 쪼무래기 김도현이 훨씬 떨렸다. 화면의 모습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방송에서 어떻게 비춰질지도 떨렸는데, 그 장면 나간 뒤 (시청자들이) 고 모부에서 최창제로 불리더라.”

진양철은 누구나 날 별만한 캐릭터가 아닐까. “처음엔 극본을 보고 하고 싶더라. 누

군들 아니겠느냐”면서도 “성민 선배처럼 할 자신이 없다. 진양철의 존재감은 나 같은 애가 넘보면 안 된다”며 겸손해 했다. “진영기(윤제문)·동기(조한철) 역도 좋는데, 난 창제가 더 마음에 든다. 인간미가 있어서 더 호감 가더라”면서 “창제는 옆집에 살 것 같은 느낌 아니냐. 시장의 위치에서 오는 무게감 보다, 어린이집 가면 학부모로 올 것 같은 느낌이 크다”고 짚었다.

30~70대 모습까지 소화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터다. 약 2시간 분장을 받았으며 “무표정하게 있으면 주름이 살지 않는다. 화영과 ‘얼씨구 절씨구’ 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름이 더 보였으면 눈 해를 감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처음에 ‘U자 대머리를 하겠다’고 하니 감독님이 정말 좋아했다. 1부와 16부에서 대머리로 나오고 싶었는데, 촬영이 계속 미뤄졌다. 다른 드라마에 들어가게 되면서 대머리로 나올 수 없어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재벌집 막내아들 엔딩은 옥의 티로 남았다. 마지막회는 원작 웹소설과 다른 결말로 끝났다. 송중기(37)는 현우로 돌아왔고, 도준의 회귀 인생은 모두 꿈으로 밝혀졌다. 송중기 결말에 ‘허무하다’는 시청자 혹평이 쏟아졌다. 김도현은 “스태프들이 방대한 분량을 16부에 담으려고 얼마나 노력한 지 안다. 좀 더 보면 타당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는지 알아서 존중하는 마음은 변함없다”면서도 “방송 보고 평가하는 건 시청자 몫이다. 아쉬움과 질타도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털어놨다.

“재벌집이 보여준 희로애락이 새로 나올 드라마에 좋은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 정말 사랑해주셔서 나오는 아쉬움 아니냐. 난 무플과 무관심을 너무 오랜 시간 경험해 이 또한 감사하고 영광”이라며 “개인적인 바람은 있었다. 편집된 장면이 꽤 있으니 2회 차 늘려서 18부작으로 선보였으면 아쉬움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김도현은 어렸을 때부터 무대 뒷공간이 익숙했다. 아버지는 연극배우 김동훈(1939~1996), 어머니는 성우 장유진(78)이



아버지가 연극계 전설로 불렸던 만큼, 연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터다. “어렸을 때 장난감이 무대 소품이었다. 부모님이 서로 극본 읽어주고, 연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컸다. 그때부터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현장에서 내 입으로 부모님 얘기를 꺼낸 적은 없다. 그렇게 인식되긴 싫었다”고 털어놨다. “아직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며 “내 아들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됐을 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작품이 잘 됐다고 좋은 아들이 아니니까. 인간적으로 더 성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은 대중들에게 ‘대한광대’로 불리길 바랐다. SNS에도 이렇게 썼는데, “20대 때 싸이월드 시절부터 쓴 닉네임”이라고 설명했다. “스스로 배우라고 하는 게 거창하고 부

끄럽다. 성격 같은 느낌이 있는데, 내가 감히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오히려 광대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광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담았다”고 했다.

“내 매력은 무매력이다. 딱히 눈빛이 강렬하거나, 키가 크지도 않다. 일반 직업을 가졌다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겠지만, 캐릭터를 맡기에는 뚜렷한 특징이 없다. 방송을 시작하고도 강렬한 느낌을 못 줘서 시청자 마음을 사지 못한 부분이 있다. 창제를 연기할 때 선후배·동료 배우, 작가, 감독님 등 많은 분들이 힘이 불어 넣어줬다. 이번에 특별히 더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큰 사랑 받을 수 있었던 건 힘을 보태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분들이 빠지면 내 인생은 별로 남지 않을 것 같다.”

블랙핑크 ‘본 핑크’, 트리플 밀리언 셀러 ‘目前’



올해 각종 K팝 기록을 갈아 치운 그룹 ‘블랙핑크’가 또 다른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씨클차트 발표된 ‘2022년 앨범 판매량 리부’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는 약 282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해당 음반은 지난 9월 16일 발매 당시 하루 반나절 만에 214만1281장을 팔아 치우며 K팝 걸그룹 첫 ‘더블 밀리언 셀러’에 등극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월드투어와 함께 꾸준한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트리플 밀리언 셀러’ 달성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전했다. 150만명 규모의 월드투어 ‘본 핑크’를 들고 있는 블랙핑크는 지난해 하반기에 북미, 유럽 투어를 성료했다. 내년 상반기엔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을 돈다.

이밖에 블랙핑크는 올해 각종 기록을 쓰며 K팝 간판 걸그룹을 넘어 K팝 간판 그룹이 됐다.

세계 양대 팝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앨범차트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정상을 동시에 석권한 최초의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다. ‘본 핑크’로 오피셜 앨범차트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음악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해도 2001년 팝 슈퍼스타 비욘세 등이 속했던 미국 걸그룹 ‘데스티니스 차일드(Destiny’s Child)’ 이후 21년 만에 미국과 영국 차트에서 동시에 1위에 거머쥔 여성 그룹이라는 기록을 썼다.

또 ‘본 핑크’ 선공개곡 ‘핑크 베놈(Pink Venom)’은 K팝 최초로 세계 최대 음원 스트

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데일리 차트서 3일 연속 정상을 유지했다.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24시간 공식 집계 9040만 회 이상을 기록,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 또 타이틀곡 ‘첫 다운(Shut Down)’은 발매 직후 6일 연속 스포티파이 글로벌 데일리 송 차트 1위를 유지한데 이어 주간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이 역시 K팝 아티스트 최초였다.

블랙핑크의 글로벌 파워는 해외 유력 매체들의 연말 결산 리스트를 통해 재차 확인된다. 미국 음악잡지 롤링스톤이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 앨범 톱100’ 25위, 스포티파이 글로벌 ‘올해 가장 많은 스트리밍을 기록한 걸그룹’ 타이틀을 차지했다. 빌보드가 발표한 ‘2022 베스트 앨범 50’ 차트에는 올해 발매된 K팝 앨범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미국 유력 시사 주간 타임(TIME) 지는 “트렌드를 이끄는 현시대의 아이콘이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팬드가 됐다”며 블랙핑크를 전 세계 걸그룹 최초의 ‘올해의 엔터테인먼트’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2022 MTV 유럽 뮤직 어워드’ 등 여러 해외 주요 시상식을 중형무진하며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Best Metaverse Performance)’, ‘베스트 K팝 부문’(리사 솔로) 트로피를 품어 안았다.

이미 유튜브 아티스트 구독자 1위 타이틀을 보유한 블랙핑크지만 올해에도 파죽지세 행보를 이어갔다. 약 1300만 명(2022년 1~12월) 이상의 팬이 새로 유입, 폭발적인 증가 추이로 현재 8350만 명 이상을 기록 중이다. 역대부 영상은 37편, 누적 조회수는 284억 뷰다.

블랙핑크의 인스타그램 총 팔로워 수는 3억4237만 명이다. 공식 오피셜 계정(5149만)을 비롯해 리사(8590만), 제니(7265만), 지수(6688만), 로제(6545만) 개인 계정까지 모두 국내 최정상 숫자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엠버서더, UN SDG와 COP26 홍보대사, 각종 공익 캠페인 등에 참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 중이다.

‘난임고백’ 이효리 “아이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싶어”



tvN 예능물 ‘캐나다 체크인’

가수 이효리가 2세를 낳아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tvN 예능물 ‘캐나다 체크인’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이효리는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 20살로 돌아간다면”이란 지인의 물음에 “아니 난 연예인 안 했을 것 같다. 진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여기 와서 더 느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족 이루고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여기(캐나다)에 와서 전체적인 걸 보고서 되게 가족 중심이고 뭔가 차분하고 에너지 같은 걸 뺏기는 게 아니라 고요히 간직하고

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사람들이 막 휘둘러는 느낌이 아니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예인으로 사는 고충도 털어놨다. “이제 연예인 하면서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많으니까. 나는 그게 제일 어려운 거 같다. 사람들이 나를 모두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막 떨려. 그래서 이 생활이 맞나 틀리나 헷갈린다”라고 했다.

지인이 “너무 잘하고 있다. 매번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향을 주잖아”라고 하자, “근데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는 자체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나도 계속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근데 한 가지로 규정지어 버리면”이라고 두려운 마음도 전했다.

이종석·아이유, 연인됐다...공동MC 본 10년 전엔 ‘불화설’도

“친한 동료 관계에서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

톱스타 연인이 탄생했다. 배우 이종석(33)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29)가 열애 중이다.

이종석 소속사 하이제이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종석 배우가 아이유 씨와 친한 동료 관계에서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날 온라인 연예미디어 ‘디스패치’는 이종석과 아이유가 일본 나고야에 있는 최고급 리조트에서 2박3일간 성탄절 연휴를 함께 보냈으며 연인 사이라고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두 사람의 지인의 말을 인용해 “이미 가족들은 연애를 인정했다. 아이유는 이종석 동생 결혼식 축가를 불렀고, 이종석은 성탄 여행에 남동생을 초대했다”고 전했다. 실제 10월 초에 아이유가 이종석 동생의 축가를 불렀다는 사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졌는

데 당시엔 이종석과 아이유가 친분이 있어 성사됐다는 설로만 나돌았다. 아이유의 지인은 디스패치에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연인으로 발전한 건 4개월 정도”라고 전했다.

이종석은 전날 ‘2022 MBC 연예대상’에서 드라마 ‘빅마우스’로 대상을 받으면서 연인을 향한 고백 같은 수상 수상소감으로 주목 받았다. 이후 온라인에서 수상소감의 상대에 대한 온갖 추측이 일었다. 디스패치가 내년 1월1일 열애 소식을 보도할 걸 예상하고 이종석이 전날 수상소감을 통해 미리 선수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사실 이종석과 아이유의 연인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BS TV ‘인기가요’ MC를 함께 본 것이다. 주로 10대를 대상으로 한 음악방송인 만큼 레옹과 마틸다 등 두 MC는 매회 새로운 콘셉트를 선보였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다정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 여동생’으로 통한 아이유는 각종 콘셉트를 적극적으로 소화하며 호응을 얻었던 반면, 쑥스러워서 덤덤하게 진행한 이종석에 대한 일부 누리꾼의 반응이 차가웠기 때문이다.

2013년 이종석은 SBS TV ‘화신 - 마음의 지배’에 출연해 ‘인기가요’ 출연 당시 아이유와 보이지 않은 기싸움이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MC를 그만둔 이후 오해를 풀고 사이가 좋아졌다고 설명했다.